



위안화 평가절상 추세 지속 전망

이소양 연구원

■ 중국 위안화는 2012년 3/4분기까지 평가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4/4분기 이후 평가절상 추세로 전환됨.

-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중간 환율은 2012년 연초의 6.3009위안에서 8월의 연중 최저치인 6.3495위안으로 밀렸으나 연말에 반등해 6.2855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.25% 상승함.
- 중국 GDP 성장률이 2012년에 들어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급랭 우려가 확산되었으나 주요 경제 지표가 4/4분기부터 호조세로 전환되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됨.
- 또한 미국,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제 핫머니가 중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됨.

■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위안화 환율개혁 이후 이미 대폭 절상되었지만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육성 의도를 감안하면, 위안화 절상추세가 2013년부터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.

-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절상폭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약 30%를 기록함.
-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의 결제 규모가 2012년 말까지 중국 대외 교역량의 12%를 돌파했는데,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무역의 30%, 신흥국 거래에서 절반 이상으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어 위안화 절상추세가 이어질 것임.
- 반면, 중국 경상수지흑자가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의 최고치인 10%에서 2011년의 3%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는데, 이를 감안하면 위안화 절상폭은 제한적일 것임.
- 또한 중국당국은 2013년 연초의 중앙경제고작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불균형 개선 및 국내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변동 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함.

(신량망, 01/07, 신화망, 01/08 등)